

오피니언

다산포럼

강명관



얼어지면 코가 닿을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생겼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연민하신 어떤 분은 이제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 한다. 좋은 병원이 집 앞에 생겼으니, 몸에 관한 탈이 나도 치료받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란다.

몇 해 전 가족의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 들락거린 적이 있었다. 2인용 병실을 같이 쓰던 노년의 그분은 몇 차례 수술을 거친 무릎이 다시 도져서 잘 못할 고초를 겪고 있었다. 한때 환자 못지않게 괴로운 사람은 24시간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드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평생 술 먹고 속을 썩이던 영감, 이제 병수발까지 들어가 한다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그 중 남편 삼아 하는 말이 귀에 걸렸다. “저 영감,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그것마저 병원비로 털어먹고 가게 생겼어!” 몇 해를 병원을 집 삼아 지내며 수술에 수술을 거듭하다 보니, 치료비가 마 비진 독에 물 붓기라, 급기야 아파트를 잡혀 빌린 돈으로 치료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뼈저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역시 비슷한 처지

에 있었으니까. 알다시피 1801년 정약용은 장기현에서 귀양살이를 시작한다. 장기에 도착하고 몇 달 만에 집안에서 기별이 왔는데 의사 수심 권과 약초 한 상자도 있었다. 책이라도 있었으니까.

고한 한 권도 없는 귀양지라 다산은 오직 의서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몸이 아플 때 집에서 보내온 약초로 다스렸다. 그것을 본, 다산이 머무는 집의 주인의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칭찬한다. “장기의 풍속은 병이 나면, 무당이 푸닥거리를 합니다. 푸닥거리가 효험이 없으면 뱀을 먹습니다. 뱀도 듣지 않으면 그만이로구나 하고 죽을 뿐이지요.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책으로 이 강촌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서에서 간단하고 쉬운 처방을 가려 뽑았다. 또 특정한 병에 가장 잘 듣는 약재

하나를 골라 쓰고, 그밖의 보조가 되는 약재도 4, 5종을 덧붙였다. 희귀해서 시골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약재는 아예 적지 않았다. 다산은 이 책에 ‘촌병촌처(村病或治)’란 이름을 붙이고, 딱 만족해 한다. 갈만 쓰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니, 세상 의술의 이치를 모르는, 내용이 뒤죽박죽인 의서와 비교하면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낯선 귀양지에 떨어져서도 시골사람들의 병을 걱정하여 의서를 엮다니, 정말 다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대 이후 의료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됨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발전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의술과 친절하고 쾌적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해당사

항이 없는 것이다. 집 앞에 생기는 대형병원을 보고 이사를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은 소문난 알부자다. 병원비 따위는 걱정할 바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결코 완쾌되지 않을 병을 다스리기 위해 전 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날리게 되었다는 한탄도 있다. 돈이 병을 고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다산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술을 남에게 제공하는 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원래 의술의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인간은 병들 수 있기에, 의술은 원래부터 공유되어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 역시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은 바로 이 정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데 요즘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제도 개혁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소문도 있다. 동료들과 반값 점심 소식을 두고 이런 저런 걱정하는 이 아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촌병촌처’의 서문이 떠올랐고, 그 김에 몇 마디 객쩍은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다. 그나마 아파트 한 채를 날리게 되었다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기거하시는지 꼭 궁금하다.

<부산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병원비

의화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이 인간을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새로운 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이즈는 전에 없던 병이 아닌가. 인간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근대 이후 의료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됨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발전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의술과 친절하고 쾌적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해당사

채권단, 금호 정상화 서둘러라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몰렸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합수를 물러가겠다. 금호그룹 대주주들은 8일 채권단과의 회의를 열어 오너 일가 모두가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주식 등 계열사 주식 일체를 채권단에 담보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금호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일부가 채권단에 계열사 주식 담보 제공과 의결권 및 처분권 위임동의서를 넘기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으나 최종적으로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신 금호그룹 일가는 채권단과의 약속대로 보유 계열사 주식의 처분권을 채권단에 넘기되 그룹 경영권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호그룹과 채권단과의 합의로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자금 지원의 길이 열려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채

권단이 담장 자금 지원 등 대책을 서둘러야만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급여를 2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크아웃 추진으로 협력업체들은 더욱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다. 지난 연말부터 금호타이어의 대금결제에 이뤄지지 않아 280여개 협력업체들이 설을 앞두고 급여 지급도 못하고 있다. 금호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금도 주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해 부도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화를 위해선 노조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룹 측은 임직원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보수를 20%씩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으나 노조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가 거부한다면 회사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금호의 회생은 노조에게도 달려 있다는 셈이다.

민자유치에 지역민 관심 높여야

돔구장 건설 논란을 계기로 민자유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에도 최근에는 사회복지 시설에까지 민자유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돔구장 건설이 성사됐다면 광주시는 민간자본 2조5천억원을 유치해 돔구장 주변을 스포츠와 레저·관광단지 개발할 계획이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하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역에 투자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서비비가 발생하기 쉽다. 포스코건설이 광주 돔구장 사업을 접기로 한데는 수익성 보장을 담담할 수 없다는 지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성 확보방안이 불투명한 관공에 지역여론까지 부정적이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지나치게 서두른 것은 아닌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돔구장 논란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인 지자체의 노력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공공재정만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실효되면서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민자유치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도시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민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 역시 지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장용주 최근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소방업무를 사·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항상 사고와 생활민원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소방력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기고 김창준 (목욕탕 안에서 걷기) 등이며 처음엔 하루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적어도 1~2주씩 간격을 두고 10분씩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대표주자인 게이트볼로 몸을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인 게임을 구사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노후 생활에 큰 활력소

소방사무 이관 반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아직도 60%에 이르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직제와 계급이 유사한 경찰이 4조 3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소화해 내면서 예산부족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실정의 소방업무를 재정기반이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더 소원한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한다면 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지난 1월 8일 오후 6시쯤 나는 평상시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주황등에 있는 한 견본주택(모텔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음이 들렸다. 퇴근길 혼잡한 도로를 뚫고 현장에도 도착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강력한 화세와 함께 인근 100여 미터의 거리까지 비산하는 불티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즉시 남부소방서 전

60대 이상 겨울철 실내운동을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없다 보니 마냥 집에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에서만 해도 몇 십 분은 꼭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 대응에 있어 소극적 대응 등 지역여건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소방의 역할에 차이가 나타나거나 재정상태에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비효율적 관사설치와 고가의 특수차량 중복배치, 자치단체별 119상황실의 설치·운영, 인력운영에 있어 인사적체, 사기저하, 고령화로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확보 곤란으로 같은 국민으로서 소방서비스의 수혜에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로의 소방사무 이관 추진은 지자체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광주시 남부소방서장>

황당한 ‘압박면접’ 구직자는 괴로워 요즘 취업의 현장에서는 소위 ‘압박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구직자들이 죽을 맛이다. 압박면접이란 면접대상자가 아주 자존심 상할만한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을 질문해 곤경에 빠뜨리고 그 대답을 얻는 것이다. 압박면접의 질문의 예를 들면 “세계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피자의 양은 얼마인가, 골프공의 구멍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날아오는 총알을 잡으려면? 지구상의 얼음이 다 녹으면?” 등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압박면접을 하고 온 사람들은 “처음 면접을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놀랐고 무슨 소리를 해야될지 몰라서 황실수술하다가 나왔다. 면접실에서 나오는데 등에 땀이 흥건하더라. 그 후 부터는 황당, 엽기, 난센스 같은 것을 모아서 공부하고 있었다”며 인터넷에 투기까지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걸 물어서 뭘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차라리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소위 ‘압박면접’이라는 코드를 갖다 붙이기까지 하면서 구직자들을 업무능력 외에 황당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여 고통을 주는 방식은 고쳐지길 바란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2동

겨울철 재래시장 모닥불 관리 철저해야 화재 위험이 늘 따르는 겨울철인데 전통 재래시장에 가 보면 드림통을 이용해 그 안에다가 나무 목재를 집어넣고 불을 피우거나 숯불구이용 모닥불 혹은 콘로 같은 걸로 불을 피우는 것을 자주 본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불을 피우다 옆으로 불기둥이 옮겨 불기둥이라 한다면 그때는 상가 전체가 화마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또 상가를 싸고 있는 건물의 재질이나 특성상 모두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태워버릴 위험이 있다. 확인해볼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대비해 소화기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즉시 쓸 수 있도록 작동을 되는지 검정서를 정도였다. 비닐과 천막, 옷가지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고,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겨울철 불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특성상 청결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無等鼓 1992년 11월 20일 영국 왕실의 공식 거주지이자 사람이 실제 사는 성으로는 가장 큰 윈저성(Windsor Castle)이 화염에 휩싸였다. 런던 서쪽 약 36 km 지점 텀즈강변에 위치한 윈저성의 불은 벽화복원 작업을 하던 중 발열장치의 불꽃이 커튼에 튀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윈저성이 불로 입은 재산 피해액만 자그마치 9천만 달러.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역사 유산이 허무하게 사라진 사실에 영국인들은 크게 마음 아파했다. 이보다 20여 년 앞선 1971년 10월 28일 아침 이집트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집트 통치자 케디브 이스마일(재위 1863~1879)이 수에즈 운하 개통 기념으로 카이로에 지은 850석 규모의 ‘케디비아 오페라 하우스’가 이날 갑작스러운 불로 사라지고 말았다. 케디비아 오페라 하우스는 개관 102년의 문화재급 건물이었다.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문화유산 소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publication detail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